



보도시점 2024. 4. 30.(화) 12:00 배포 2024. 4. 30.(화) 9:00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 '23년 대구 청년인구는(19~39세) '15년 대비 17.1% 감소, '23년 수도권으로 약 8천명 순유출
- 대구 청년의 고용률(64.5%), 상용근로자 비중(68.9%), 300만원이상 임금비율(34.4%), 평균부채(670만원), 금융자산(1,173만원), 소득만족도(23.7%), 소비생활만족도(19.8%)는 수도권에 비해 낮음
- 대구 청년의 아파트 거주비율(61.7%), 자가 점유비율(60.2%)은 수도권보다 높음
- 대구 청년의 배우자있는 비율(25.3%), 맞벌이비율(70.9%), 향후 결혼계획 비율(69.5%)은 수도권보다 낮고, 부모동거비율(49.8%), 평균자녀수(1.54명)는 수도권보다 높음
- 대구 청년의 활동경험(80.7%),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51.1%), 주관적 만족도(40.0%)는 수도권에 비해 낮음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 경쟁력 약화 및 지역산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성헌)은 대구광역시의 청년 인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청년통계등록부와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하여 대구와 수도권 청년의 경제활동, 거주환경 등 청년 삶의 질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23년 대구의 19~39세 청년인구는 '15년 대비 17.1% 감소한 585천명이며 '23년 청년인구 비중(24.6%)은 수도권(28.3%)보다 3.7%p 낮았다. '23년 대구 청년 약 8천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순이었다.

'23년 대구 청년은 남자(53.0%)가 여자(47.0%)보다 6.0%p 많았고, 그 차이는 수도권(1.8%p)보다 컸다. 교육정도가 대졸이상인 비율은 61.0%로 수도권(62.8%)보다 1.8%p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66.4%)가 남자(56.0%)보다 10.4%p 높았고, 그 차이는 수도권(10.2%p)보다 컸다.

'23년 상반기 대구 청년의 고용률(64.5%)은 수도권 청년(70.5%)에 비해 6.0%p 낮았고, '15년 대비 그 격차는 커졌다. 취업자의 300만원이상 임금비율(34.4%)과 상용근로자 비중(68.9%)은 수도권보다 각각 13.1%p, 3.4%p 낮았다.

'23년 상반기 청년 취업자의 상위 5개 산업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대구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수도권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났다.

'22년 대구 청년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비율(39.5%)은 수도권(35.6%)보다 3.9%p 높았다. 평균부채는 670만원, 금융재산은 1,173만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각각 732만원, 36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대구 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30.9%), 소득 만족도(23.7%), 소비생활 만족도(19.8%)는 수도권보다 각각 4.5%p, 2.7%p, 5.4%p 낮았다.

'22년 대구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61.7%로 수도권보다 7.2%p 높았으며, 주택소유비율은 13.0%로 수도권보다 0.2%p 낮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대구 청년의 자가 비율이 60.2%로 수도권에 비해 7.5%p 높았다.

'22년 대구 청년의 부모동거 비율(49.8%)은 수도권에 비해 4.9%p 높고, 1인가구 비율(19.7%)은 2.0%p 낮았다. 평균 초혼연령(남자 33.63세, 여자 31.22세)은 수도권 청년(남자 33.85세, 여자 31.65세)보다 낮았다. 배우자 있는 비율(25.3%), 맞벌이 비율(70.9%)은 수도권보다 각각 0.3%p, 6.5%p 낮았다. 평균자녀수(1.54명)는 수도권보다 0.03명 많았다. 향후 결혼계획 비율(69.5%)은 수도권에 비해 4.6%p 낮았으나, 자녀출산 의향(62.7%)은 수도권보다 2.0%p 높았다.

'22년 대구 청년의 1년간 활동경험* 비율(80.7%)은 수도권보다 1.4%p 낮았는데, 특히 문화예술(35.4%), 스포츠(42.8%)에서 각각 8.3%p, 4.5%p 낮았다.

*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단체동호회 활동경험

'23년 대구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23.1%)는 수도권보다 2.7%p 낮았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51.1%)와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 정도인 주관적 만족도(40.0%)는 수도권보다 각각 6.6%p, 4.1%p 낮았다.

【붙임】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동훈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영수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김동은 (053-609-6656)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2024. 4.



동북지방통계청
지 역 통 계 과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대구광역시 청년인구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을 비교·분석한 자료임

□ 분석대상

○ 각 기준년도 만 19~39세 청년

- 청년삶실태조사(만 19~34세), 사회조사(만 20~39세)

- 청년통계등록부는 일반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

*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

○ 전입 : 시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

○ 전출 : 시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 순이동 :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전국의 순이동은 0)

- 순유출(전출초과) :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경우

□ 활용자료 및 기준시점

자료명	분석 항목	기준시점	청년층
주민등록인구현황	청년인구 규모, 성·연령별 분포	2015, 2023년 12월	19~39세
청년통계등록부*	부모동거 및 1인가구 비율, 배우자 유무 등	2015, 2022년 11월 1일	19~39세
국내인구이동통계	청년의 이동 추이 및 순유출 사유	2015, 2023년	19~39세
청년삶실태조사	평균 구직기간 부채 및 금융재산 주거 점유형태 등	2022년	19~34세
지역별고용조사	교육정도,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지위 등	2015, 2023년 4월	19~39세
사회조사**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등	2015, 2023년 2016, 2022년	20~39세
인구동향조사	평균 초혼연령	2015, 2022년	-

* 일반가구원 대상으로 집계

** 사회조사의 경우 흘·짝수년 조사항목이 달라 항목별로 기준시점 상이

□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구이동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모든 세대원에 적용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적용
- 자료별로 기준시점 및 청년층 기준연령이 다르니 해석 시 유의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에 게시 예정임

목 차

I. 청년인구 현황

1. 청년인구 변화	1
2. 성·연령별 분포	1
3. 청년 이동 추이	2
4. 수도권 순유출 사유	3
5. 교육정도	3

II. 경제활동

1. 일자리	4
2. 경제적 여건	7

III. 거주환경

1. 주거특성	9
2. 주거환경 만족도	10

IV. 가족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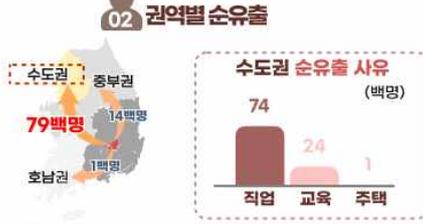
1. 가구 형태	11
2. 결혼·출산	11
3. 가족관계 만족도	13

V. 참여 및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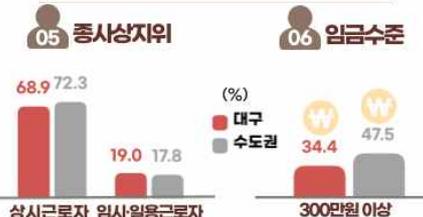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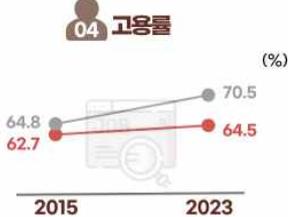
1. 참여	14
2. 관계	14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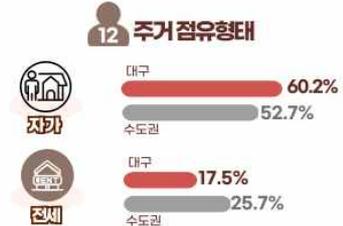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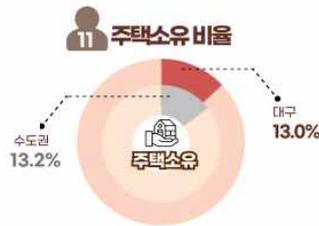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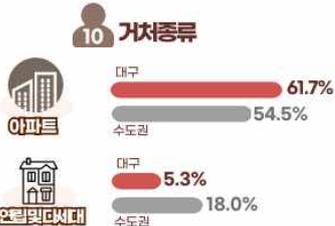
청년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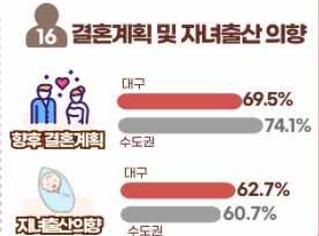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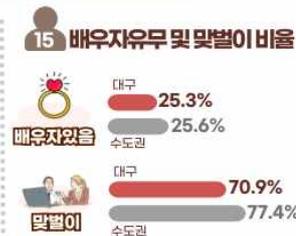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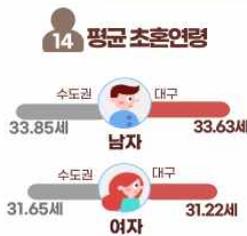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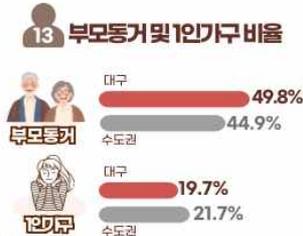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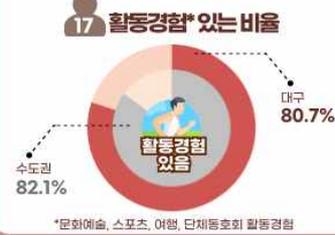
거주환경



가족형성



참여 및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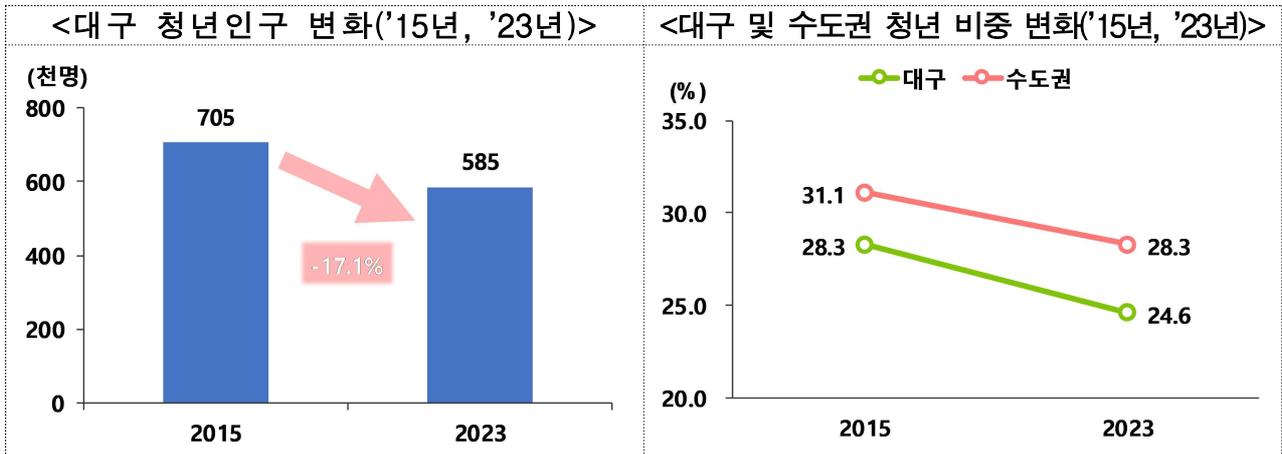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단체동호회 활동경험

I. 청년인구 현황

1. 청년인구 변화

- 2023년 대구 청년인구(19~39세)는 '15년대비 17.1% 감소한 585천명
 - 전국은 12.0%, 수도권은 7.0% 감소
- '23년 대구 청년인구는 전체인구의 24.6%로, '15년대비 3.7%p 감소



<청년인구 변화('15년,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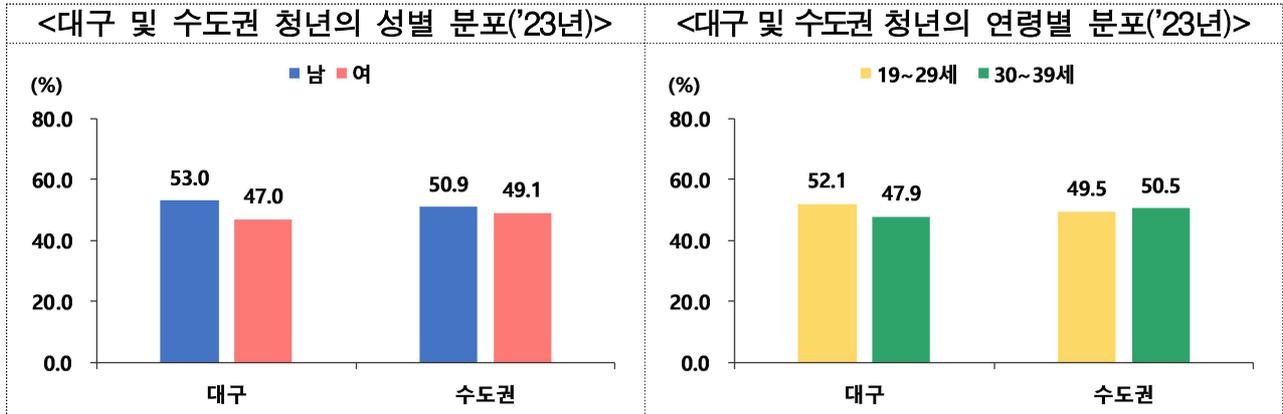
(단위: 천명, %, %p)

	2015			2023			'15년대비	
	총인구	청년인구	비중	총인구	청년인구	비중	청년인구 증감률	비중 증감
대구	2,488	705	28.3	2,375	585	24.6	-17.1	-3.7
전국	51,529	15,055	29.2	51,325	13,245	25.8	-12.0	-3.4
수도권	25,471	7,920	31.1	26,014	7,362	28.3	-7.0	-2.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성·연령별 분포

- (성별) '23년 대구 청년의 성별 분포는 남자 53.0%, 여자 47.0%로, 남자가 6.0%p 많음
 - 남자(53.0%) 비중은 수도권(50.9%)보다 2.1%p 높음
- (연령별) '23년 대구 청년의 연령별 분포는 19~29세(52.1%)가 30~39세(47.9%)보다 4.2%p 많음
 - 수도권은 30~39세(50.5%)가 19~29세(49.5%)보다 1.0%p 많음



<청년의 성·연령별 분포('15년, '23년)>

(단위: %, %p)

	2015				2023			
	남	여	19~29세	30~39세	남	여	19~29세	30~39세
대구(A)	52.6	47.4	51.4	48.6	53.0	47.0	52.1	47.9
전국	51.9	48.1	49.0	51.0	52.1	47.9	50.4	49.6
수도권(B)	50.9	49.1	48.3	51.7	50.9	49.1	49.5	50.5
차이(A-B)	1.7	-1.7	3.1	-3.1	2.1	-2.1	2.6	-2.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 청년 이동 추이

- '23년 대구 청년 순유출¹⁾은 6,115명으로, '15년(7,071명)보다 956명 감소
 - (권역별²⁾) '23년 순유출은 수도권(7,858명), 중부권(1,378명), 호남권(71명) 순
 - 수도권 순유출은 '15년대비 2,774명 증가
 - (성·연령별) 성별로는 남자(3,911명) 순유출이 여자(2,204명)보다 더 크며, 연령별로는 19~29세(7,142명)에서 순유출 발생
 - 19~29세 순유출은 '15년대비 932명 증가

<대구 청년의 권역별, 성·연령별 순이동 변화('15년, '23년)>

(단위: 명)

	권역별 순이동				성·연령별 순이동		
	2015	2023	증감		2015	2023	증감
전국	-7,071	-6,115	956	전체	-7,071	-6,115	956
수도권	-5,084	-7,858	-2,774	남	-4,224	-3,911	313
중부권	-1,381	-1,378	3	여	-2,847	-2,204	643
호남권	-253	-71	182	19~29세	-6,210	-7,142	-932
영남권	-353	3,192	3,545	30~39세	-861	1,027	1,888

주 1) 순유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로, 표에서 (-)로 표시됨

2)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울산경북경남)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4. 수도권 순유출 사유

- '23년 대구 청년의 수도권 순유출 사유는 직업(7,383명), 교육(2,393명), 주택(105명) 순
- '15년대비 순유출은 직업(2,659명), 교육(691명)에서 크게 증가
 - 19~29세는 직업에서 2,054명, 교육에서 679명 순유출 증가
 - 30~39세는 직업에서 605명, 교육에서 12명 순유출 증가

<대구 청년의 사유별 수도권 순이동 변화('15년, '23년)>

(단위: 명)

	2015					2023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기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기타 ¹⁾
전체	-4,724	2,093	-650	-1,702	-101	-7,383	2,206	-105	-2,393	-183
19~29세	-4,170	1,795	-600	-1,686	-93	-6,224	1,752	-158	-2,365	-207
30~39세	-554	298	-50	-16	-8	-1,159	454	53	-28	24

주 1) 기타: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포함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5. 교육정도

- '23년 상반기 대구 청년의 대졸이상 비율은 61.0%이며, 여자(66.4%)가 남자(56.0%)보다 10.4%p 높음
- 수도권의 대졸이상 비율(62.8%)에 비해 1.8%p 낮으며, 남자(1.6%p)가 여자(1.4%p)보다 격차가 더 큼

<청년의 교육정도('15년 '23년 상반기)>

(단위: %, %p)

	2015 상반기		2023 상반기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남		대졸이상	남	
				여	여		여	여
대구(A)	40.2	59.8	39.0	44.0	33.6	61.0	56.0	66.4
전국	43.1	56.9	39.5	44.3	34.5	60.5	55.7	65.5
수도권(B)	40.1	59.9	37.2	42.4	32.2	62.8	57.6	67.8
차이(A-B)	0.1	-0.1	1.8	1.6	1.4	-1.8	-1.6	-1.4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II. 경제활동

1. 일자리

□ 고용률 및 실업률

- (고용률) '23년 상반기 대구 청년의 고용률은 64.5%로, 수도권(70.5%)보다 6.0%p 낮음
 - '23년 남자 고용률은 68.0%로, 여자(60.7%)보다 7.3%p 높음
- (실업률) '23년 상반기 대구 청년의 실업률은 4.0%로, 수도권(4.0%)과 동일

<청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15년·'23년 상반기)>

(단위: %, %p)

	2015 상반기		2023 상반기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남	여	실업률	남	여
대구(A)	62.7	7.3	64.5	68.0	60.7	4.0	4.2	3.8
전국	64.8	6.3	68.3	72.3	64.1	4.5	4.6	4.3
수도권(B)	64.8	7.1	70.5	74.1	66.9	4.0	4.1	3.8
차이(A-B)	-2.1	0.2	-6.0	-6.1	-6.2	0.0	0.1	0.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임금수준

- '23년 상반기 대구 청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300만원 이상이 34.4%로, 수도권(47.5%)보다 13.1%p 낮음
 - 300만원미만 비율은 65.6%로 수도권(52.5%)보다 13.1%p 높음
- 300만원이상 비율은 대구 30~39세가 47.4%로 수도권(62.4%)보다 15.0%p 낮고, 19~29세 수도권과의 임금수준 격차(9.1%p)보다 더 큼

<청년의 임금수준('23년 상반기)>

(단위: %, %p)

	전체		19~29세		30~39세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대구(A)	65.6	34.4	80.7	19.3	52.6	47.4
전국	56.3	43.7	74.5	25.5	41.9	58.1
수도권(B)	52.5	47.5	71.6	28.4	37.6	62.4
차이(A-B)	13.1	-13.1	9.1	-9.1	15.0	-15.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종사상지위

- (상용근로자) '23년 상반기 대구 청년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68.9%로, 수도권(72.3%)보다 3.4%p 낮음
- (임시·일용근로자) '23년 상반기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대구(19.0%)가 수도권(17.8%)보다 1.2%p 높음

<청년의 종사상지위('15년·'23년 상반기)>

(단위: %, %p)

	2015 상반기			2023 상반기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대구(A)	63.4	25.0	11.6	68.9	19.0	12.1
전국	63.8	24.1	12.1	70.8	18.1	11.0
수도권(B)	63.1	25.4	11.6	72.3	17.8	9.9
차이(A-B)	0.3	-0.4	0.0	-3.4	1.2	2.2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 '23년 상반기 기준 대구의 산업별 청년 취업자는 '제조업'(19.0%)이 가장 많으며, 수도권(15.3%)보다 3.7%p 높음
- 상위 5개 산업 중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구와 수도권이 차이가 없으나, 대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9%)'과 '교육서비스업(10.0%)', 수도권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4%)'과 '정보통신업(9.3%)'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 산업별 취업자 비중 상위 5개('23년 상반기)>

(단위: %)

	대구		전국		수도권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위	제조업	19.0	제조업	17.5	제조업	15.3
2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	도매 및 소매업	12.3	도매 및 소매업	13.3
3위	도매 및 소매업	12.9	숙박 및 음식점업	10.4	숙박 및 음식점업	9.5
4위	숙박 및 음식점업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
5위	교육 서비스업	10.0	교육 서비스업	8.2	정보통신업	9.3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취업자의 직업

- '23년 상반기 기준 대구의 직업별 청년 취업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9.9%)'가 가장 많으며, 수도권(35.9%)보다 6.0%p 낮음
- 상위 5개 직업 중 1~4위까지는 수도권과 차이가 없으나, 5위에서 대구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9.7%)', 수도권은 '단순노무 종사자(6.0%)'가 다르게 나타남

<청년 직업별 취업자 비중 상위 5개('23년 상반기)>

(단위: %)

	대구	비중	전국	비중	수도권	비중
1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9
2위	사무 종사자	19.3	사무 종사자	23.8	사무 종사자	25.1
3위	서비스 종사자	14.2	서비스 종사자	13.0	서비스 종사자	11.9
4위	판매 종사자	11.1	판매 종사자	9.2	판매 종사자	9.2
5위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0	단순노무 종사자	6.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근속기간

- '22년 청년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비율은 대구가 39.5%로, 수도권(35.6%)보다 3.9%p 높음
- 5년이상 근속 비율은 대구(17.6%)가 수도권(18.2%)보다 0.6%p 낮음

<청년의 근속기간('15년, '22년)>

(단위: 개월, %, %p)

	2015			2022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대구(A)	46.2	40.4	13.4	39.5	42.8	17.6
전국	43.6	41.2	15.2	36.9	44.8	18.3
수도권(B)	42.6	42.0	15.5	35.6	46.2	18.2
차이(A-B)	3.6	-1.6	-2.1	3.9	-3.4	-0.6

출처: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2. 경제적 여건

□ 부채 및 금융재산

- (부채) '22년 대구 청년(19~34세)의 평균부채는 670만원으로, 수도권(1,402만원)보다 732만원 적음
 - 부채유형별로는 주택(485만원), 학자금(34만원), 자산투자(11만원), 생활비(10만원) 순
- (금융재산) '22년 대구 청년(19~34세)의 금융재산은 1,173만원으로, 수도권(1,538만원)보다 365만원 적음
 - 특히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의 경우 대구 청년이 평균 195만원으로, 수도권(808만원)보다 613만원 적음

<청년의 부채 및 금융재산('22년)>

(단위: 만원)

	부채					재산	
	총부채	학자금	자산투자	주택	생활비	금융재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¹⁾
대구(A)	670	34	11	485	10	1,173	195
전국	1,172	58	36	823	32	1,415	760
수도권(B)	1,402	73	46	981	31	1,538	808
차이(A-B)	-732	-39	-35	-496	-21	-365	-613

주 1)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 등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23년 대구 청년(20~39세)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0.9%로, 수도권(35.4%)보다 4.5%p 낮음
 - (성별) 대구 남자(27.7%)는 수도권(33.6%)보다 5.9%p 낮음
 - (연령별) 대구 20~29세(40.0%)는 수도권(37.5%)보다 2.5%p 높고, 30~39세(22.7%)는 수도권(33.9%)보다 11.2%p 낮음

<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15년, '23년)>

(단위: %, %p)

	2015	2023	성별		20~29세	30~39세
			남자	여자		
대구(A)	19.2	30.9	27.7	34.4	40.0	22.7
전국	26.7	35.9	34.5	37.6	37.5	34.7
수도권(B)	27.6	35.4	33.6	37.5	37.5	33.9
차이(A-B)	-8.4	-4.5	-5.9	-3.1	2.5	-11.2

주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소득 만족도

- '23년 대구 청년(20~39세)의 소득 만족도는 23.7%로, 수도권(26.4%)보다 2.7%p 낮음
 - (성별) 대구 남자(20.5%)는 수도권(27.3%)보다 6.8%p 낮음
 - (연령별) 대구 30~39세(20.1%)는 수도권(26.1%)보다 6.0%p 낮음
- <청년의 소득 만족도('15년, '23년)>

(단위: %, %p)

	2015	2023			20~29세	30~39세
			남자	여자		
대구(A)	12.6	23.7	20.5	26.8	28.1	20.1
전국	12.4	28.4	29.2	27.6	28.3	28.5
수도권(B)	12.5	26.4	27.3	25.3	26.8	26.1
차이(A-B)	0.1	-2.7	-6.8	1.5	1.3	-6.0

주: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소비생활 만족도¹⁾

- '23년 대구 청년(20~39세)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19.8%로, 수도권(25.2%)보다 5.4%p 낮음
 - (성별) 대구 남자(16.7%)는 수도권(23.3%)보다 6.6%p 낮음
 - (연령별) 대구 30~39세(17.4%)는 수도권(24.3%)보다 6.9%p 낮음
- <청년의 소비생활 만족도('15년, '23년)>

(단위: %, %p)

	2015	2023			20~29세	30~39세
			남자	여자		
대구(A)	13.2	19.8	16.7	22.6	22.1	17.4
전국	16.2	24.5	23.8	25.2	25.3	23.7
수도권(B)	17.1	25.2	23.3	27.1	26.2	24.3
차이(A-B)	-3.9	-5.4	-6.6	-4.5	-4.1	-6.9

주 1)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III. 거주환경

1. 주거특성

□ 거처종류 및 1인당 주거면적

- (거처종류) '22년 대구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61.7%로, 수도권(54.5%)보다 7.2%p 높음
 - 연립 및 다세대 거주 비율은 수도권(18.0%)이 대구(5.3%)보다 12.7%p 높음
- (1인당 주거면적) '22년 대구 청년의 1인당 주거면적은 37.1m²로, 수도권(33.1m²)보다 4.0m² 더 넓음

<청년의 거처종류('15년, '22년) 및 1인당 주거면적('22년)>

(단위: %, %p, m²)

	거처종류								1인당 주거 면적 (2022)
	2015				2022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대구(A)	33.3	57.1	6.6	2.9	28.9	61.7	5.3	4.2	37.1
전국	27.8	54.5	12.6	5.0	22.3	57.1	12.6	8.1	34.6
수도권(B)	23.0	53.1	18.2	5.7	17.6	54.5	18.0	9.9	33.1
차이(A-B)	10.3	4.0	-11.6	-2.8	11.3	7.2	-12.7	-5.7	4.0

출처: 거처종류 -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1인당 주거면적 -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 주택소유 비율

- '22년 대구 청년의 주택소유 비율은 13.0%로, 수도권(13.2%)보다 0.2%p 낮음
 - (성별) 대구 남자(15.3%)는 수도권(14.7%)보다 0.6%p 높고, 여자(10.7%)는 수도권(11.7%)보다 1.0%p 낮음
 - (연령별) 대구 19~29세(3.2%)는 수도권(3.8%)보다 0.6%p 낮고, 30~39세(23.5%)는 수도권(22.0%)보다 1.5%p 높음

<청년의 주택소유 비율('15년, '22년)>

(단위: %, %p)

	2015	2022	2022		19~29세	30~39세
			남자	여자		
대구(A)	14.3	13.0	15.3	10.7	3.2	23.5
전국	14.9	13.9	15.8	11.9	3.9	23.5
수도권(B)	13.9	13.2	14.7	11.7	3.8	22.0
차이(A-B)	0.4	-0.2	0.6	-1.0	-0.6	1.5

출처: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 주거 점유형태

- '22년 대구 청년(19~34세)의 자가 비율은 60.2%로, 수도권(52.7%)보다 7.5%p 높음
- 대구 전세 비율은 17.5%로 수도권(25.7%)보다 8.2%p 낮음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¹⁾('22년)>

(단위: %)

	전체	자가	전세	월세 ²⁾	기타
대구(A)	100.0	60.2	17.5	20.4	1.9
전국	100.0	55.8	21.5	20.0	2.7
수도권(B)	100.0	52.7	25.7	19.7	1.8
차이(A-B)	-	7.5	-8.2	0.7	0.1

주 1) 청년이 속해 있는 가구 기준
 주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2. 주거환경 만족도

□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

- '22년 대구 청년(19~34세)의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를 수도권과 비교하면, 대구는 '녹지공간(4.09점)과 '대중교통 이용'(4.04점) 등에서, 수도권은 '치안범죄 등 방범상태(4.01점)에서 더 높게 나타남

<청년의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22년)>

(단위: 점)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치안 범죄 등 방범상태	위생 환경	녹지공간	문화/부대 시설	교육 환경	이웃과의 관계
대구(A)	3.98	4.04	3.99	3.94	4.09	3.67	3.74	3.60
전국	3.89	3.83	3.96	3.87	3.91	3.60	3.69	3.57
수도권(B)	3.95	3.92	4.01	3.89	3.95	3.66	3.72	3.57
차이(A-B)	0.03	0.12	-0.02	0.05	0.14	0.01	0.02	0.03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IV. 가족형성

1. 가구 형태

□ 부모동거 및 1인가구 비율

- (부모동거) '22년 대구 청년의 부모동거 비율은 49.8%로, 수도권(44.9%)보다 4.9%p 높음
 - 대구 남자 청년은 절반 이상(52.6%)이 부모와 동거하며, 수도권(46.5%)보다 6.1%p 높음
- (1인가구) '22년 대구 청년의 1인가구 비율은 19.7%로, 수도권(21.7%)보다 2.0%p 낮음

<부모동거, 1인가구 청년 비율('15년, '22년)>

(단위: %, %p)

	2015		2022					
	부모동거	1인가구	부모동거	남		1인가구	남	
				여	남		여	
대구(A)	53.3	12.1	49.8	52.6	46.9	19.7	21.6	17.7
전국	48.1	13.8	44.5	46.4	42.5	21.7	24.3	19.1
수도권(B)	48.6	13.7	44.9	46.5	43.3	21.7	23.9	19.5
차이(A-B)	4.7	-1.6	4.9	6.1	3.6	-2.0	-2.3	-1.8

출처: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2. 결혼 · 출산

□ 평균 초혼연령 및 평균 자녀수

- (평균 초혼연령) '22년 대구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63세, 여자 31.22세로, 수도권(남자 33.85세, 여자 31.65세)보다 각각 0.22세, 0.43세 낮음
- (평균 자녀수) '22년 대구 청년의 평균 자녀수는 1.54명으로, 수도권(1.51명)보다 0.03명 많음

<청년의 평균 초혼연령 및 평균 자녀수('15년, '22년)>

(단위: 세, 명)

	2015			2022		
	평균 초혼연령		평균 자녀수	평균 초혼연령		평균 자녀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대구(A)	32.51	30.16	1.63	33.63	31.22	1.54
전국	32.57	29.96	1.65	33.72	31.26	1.56
수도권(B)	32.72	30.35	1.61	33.85	31.65	1.51
차이(A-B)	-0.21	-0.19	0.02	-0.22	-0.43	0.03

출처: 평균 초혼연령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평균 자녀수 -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 배우자유무 및 맞벌이 비율

- (배우자유무) '22년 대구 청년의 배우자 있는 비율(25.3%)은 '15년(33.4%)에 비해 8.1%p 감소하였고, 수도권(25.6%)보다 0.3%p 낮음
 - 성별로는 남자(20.5%)가 여자(30.4%)보다 9.9%p 낮음
- (맞벌이) '22년 대구 배우자 있는 청년의 맞벌이 비율은 70.9%로, 수도권(77.4%)보다 6.5%p 낮음
 - '22년 수도권과 맞벌이 비율 격차(6.5%p)는 '15년(5.7%p)보다 더 벌어짐
 - 성별로는 남자(71.7%)가 여자(70.4%)보다 1.3%p 높음

<청년의 배우자유무 및 맞벌이유무 비율('15년, '22년)>

(단위: %, %p)

	2015		2022					
	배우자 있음	맞벌이	배우자 있음	남	여	맞벌이	남	여
대구(A)	33.4	59.4	25.3	20.5	30.4	70.9	71.7	70.4
전국	35.8	63.0	26.9	22.2	31.7	74.7	75.4	74.2
수도권(B)	34.6	65.1	25.6	21.7	29.4	77.4	78.1	76.9
차이(A-B)	-1.2	-5.7	-0.3	-1.2	1.0	-6.5	-6.4	-6.5

출처: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 향후 결혼계획¹⁾ 및 자녀출산 의향

- (향후 결혼계획) '22년 대구 미혼 청년(19~34세)의 '향후 결혼계획이 있는 비율'은 69.5%로, 수도권(74.1%)보다 4.6%p 낮음
 - 성별로는 대구 남자(71.8%)가 수도권(79.6%)보다 7.8%p 낮음
- (자녀출산 의향) '22년 대구 청년의 '자녀출산 의향 있는 비율'은 62.7%로, 수도권(60.7%)보다 2.0%p 높음
 - 성별로는 남자는 대구(64.3%)가 수도권(69.2%)보다 4.9%p 낮고, 여자는 대구(60.8%)가 수도권(52.3%)보다 8.5%p 높음

<청년의 향후 결혼계획 및 자녀출산 의향('22년)>

(단위: %, %p)

	향후 결혼계획 있음	자녀출산 의향 있음		자녀출산 의향 있음	자녀출산 의향 있음	
		남	여		남	여
대구(A)	69.5	71.8	66.3	62.7	64.3	60.8
전국	75.0	79.7	69.3	63.3	70.5	55.3
수도권(B)	74.1	79.6	68.1	60.7	69.2	52.3
차이(A-B)	-4.6	-7.8	-1.8	2.0	-4.9	8.5

주 1) 배우자 없는 청년의 향후 결혼계획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3. 가족관계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 '22년 대구 청년(20~39세)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73.4%로, 수도권(72.7%)보다 0.7%p 높음
- (성별) 대구 남자(75.3%)는 수도권(71.8%)보다 3.5%p 높으나, 여자(71.1%)는 수도권(73.6%)보다 2.5%p 낮음
- (연령별) 대구 20~29세(74.7%)는 수도권(73.4%)보다 1.3%p 높으나, 30~39세(71.9%)는 수도권(72.1%)보다 0.2%p 낮음

<청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16년, '22년)>

(단위: %, %p)

	2016	2022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20~29세	30~39세
대구(A)	60.2	73.4	75.3	71.1	74.7	71.9
전국	63.9	72.8	72.5	73.3	73.3	72.4
수도권(B)	63.2	72.7	71.8	73.6	73.4	72.1
차이(A-B)	-3.0	0.7	3.5	-2.5	1.3	-0.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V. 참여 및 관계

1. 참여

□ 활동경험 여부 및 필요성

- (활동경험 여부) '22년 대구 청년(19~34세)의 1년간 활동경험 비율은 80.7%로, 수도권(82.1%)보다 1.4%p 낮음
 - 문화·예술(35.4%), 스포츠(42.8%) 활동경험 비율은 수도권보다 각각 8.3%p, 4.5%p 낮음
- (필요성) '22년 대구 청년(19~34세) 중 활동경험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99.3%로, 수도권(98.8%)보다 0.5%p 높음
 - 문화·예술 활동은 대구 청년(89.1%)이 수도권(92.5%)보다 3.4%p 낮음

<청년의 활동경험 여부 및 필요성('22년)>

(단위: %, %p)

	활동경험 있음 ¹⁾					활동경험 필요함 ²⁾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단체동호회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단체동호회
대구(A)	80.7	35.4	42.8	69.9	23.2	99.3	89.1	94.8	98.0	81.6
전국	80.7	40.4	46.2	70.0	24.6	98.6	91.5	93.8	97.2	80.4
수도권(B)	82.1	43.7	47.3	71.6	24.6	98.8	92.5	94.5	97.4	81.3
차이(A-B)	-1.4	-8.3	-4.5	-1.7	-1.4	0.5	-3.4	0.3	0.6	0.3

주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단체동호회 중 1개 이상 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단체동호회 활동경험이 1개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2. 관계

□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 '23년 대구 청년(20~39세)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51.1%로, 수도권(57.7%)보다 6.6%p 낮음
 - '23년 대구와 수도권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격차(6.6%p)는 '17년(2.6%p)보다 4.0%p 더 벌어짐
 - 성별로는 남자(47.4%), 연령별로는 30~39세(42.6%) 청년이 수도권과 격차가 더 큼

<청년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17년, '23년)>

(단위: %, %p)

	2017	2023	남자	여자	20~29세	30~39세
대구(A)	51.8	51.1	47.4	54.4	59.2	42.6
전국	55.0	58.6	58.5	58.8	63.2	54.3
수도권(B)	54.4	57.7	57.0	58.6	61.1	54.7
차이(A-B)	-2.6	-6.6	-9.6	-4.2	-1.9	-12.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적 고립도¹⁾

○ '23년 대구 청년(20~39세)의 사회적 고립도는 23.1%로, 수도권(25.8%)보다 2.7%p 낮음

- (성별) 대구 남자(23.4%)의 사회적 고립도는 여자(22.7%)보다 0.7%p 높음

- (연령별) 대구 30~39세(25.1%)가 20~29세(21.1%)보다 4.0%p 높음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15년, '23년)>

(단위: %, %p)

	2015	2023	남자	여자	20~29세	30~39세
대구(A)	30.5	23.1	23.4	22.7	21.1	25.1
전국	24.1	26.0	29.0	22.7	24.4	27.5
수도권(B)	24.0	25.8	29.3	22.1	23.4	28.0
차이(A-B)	6.5	-2.7	-5.9	0.6	-2.3	-2.9

주 1)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주관적 만족도¹⁾

○ '23년 대구 청년(20~39세)의 주관적 만족도는 40.0%로, 수도권(44.1%)보다 4.1%p 낮음

- (성별) 대구 여자(45.5%)의 주관적 만족도는 남자(33.8%)보다 11.7%p 높음

- (연령별) 대구 20~29세(44.1%)는 30~39세(35.7%)보다 8.4%p 높음

<청년의 주관적 만족도('15년, '23년)>

(단위: %, %p)

	2015	2023	남자	여자	20~29세	30~39세
대구(A)	33.6	40.0	33.8	45.5	44.1	35.7
전국	36.0	45.9	44.1	47.7	46.5	45.3
수도권(B)	35.3	44.1	42.3	46.0	43.7	44.4
차이(A-B)	-1.7	-4.1	-8.5	-0.5	0.4	-8.7

주 1)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행복도) 수준,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